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음료는? 단연 커피다. 그러나 커피를 마시면 박해를 받던 때가 있었다. 16세기 말 이슬람 문명을 중심으로 유럽에 퍼진 커피는 '악마의 음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악마의 음료에서 만인의 음료로 거듭난 커피의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본다.

글 편집실

교황의 세례까지 받은 악마의 음료

악마의 음료, 교황의 세례를 받다

커피의 역사는 6~7세기까지 거슬러 오른다. 에티오피아에서 '칼디'라는 염소 목동은 염소들이 처음 보는 빨간 열매를 먹고 평소보다 활기차다는 것을 보고 이 신비의 열매를 수도승에게 건넸다. 커피는 수도승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빠르게 전파됐다. 그 후 커피는 16세기 아랍에서 이스탄불을 거쳐 유럽에 보급됐다.

당시 교회 중심의 유럽 사회는 이슬람에서 온 커피를 두고 '악마의 음료', '검은 나무의 썩은 물' 등으로 나쁘게 불렀다. 이후 커피를 마셔도 되는가를 두고 여러 논쟁이 이어졌고, 급기야 성직자들은 16세기 교황 클레멘스 8세에게 커피를 금지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커피를 마신 교황은 그 맛에 반하고야 만다. 그래서 "악마가 마시는 음료라지만 참으로 맛이 좋다. 이 맛있는 것을 이교도만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며 "커피를 기독교 음료로 만들자"고 오히려 커피에 세례까지 주고 음료로써 장려했다. 이는 커피가 유럽을 매혹한 계기가 됐다. 유럽에 보급된 커피는 예술가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급기야 커피 수요가 늘면서 맥주와 포도주의 소비량은 줄어들었다.

이후 유럽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자신들의 식민지에서 앞다퉈 커피를 대량 재배하기 시작했다. 커피는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인도, 서인도제도, 중앙아메리카, 케냐, 탄자니아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재배됐다.

대중화 이끈 인스턴트 커피

17세기 후반 유럽의 커피 붐과 더불어 카페 문화가 성행하기 시작했다. 영국에서는 '파스카로제 하우스'라는 커피하우스가 등장했다. 이 당시 커피하우스는 일명 '1페니 대학'으로 통했다. 이용료 1페니를 내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고, 교양을 전파하는 '지식의 장'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17세기 중반 런던에만 300개 이상의 커피집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유럽의 커피하우스는 전세계 뉴스와 정보가 교환되는 비즈니스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금융업자들이 자주 모이곤 했던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훗날 로이드보험회사(Lloyd of London)로 발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커피를 비로소 대중들이 본격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한 것은 인스턴트 커피가 발명되고 나서다. 1920년대 말 커피의 주요 산지 가운데 하나였던 브라질에서 커피콩 작황의 풍년으로 시세가 폭락하면서 브라질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네슬레에 잉여 생산량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네슬레는 수

년간의 개발을 통해 1937년 지금과 거의 유사하게 맛과 향을 보존한 인스턴트 커피를 만들어냈다. 네슬레는 1938년 이 커피를 네스카페(NESCAFÉ)라는 이름으로 출시했고, 이는 지금까지 인스턴트 커피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는 뜨거운 물만 부으면 마실 수 있다는 간편함으로 많은 소비자를 매료시켰고, 메가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전쟁 후 커피 대중화돼

국내 커피의 대중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군 병사에게 지급된 전투식량에 인스턴트 커피가 있었다. 미군 매점에서 불법으로 반출된 인스턴트 커피가 시장에 유통되면서 사람들은 이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후 커피하면 맥스웰과 맥심으로 통칭되는 가루 커피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게 된다. 설탕이 가득한 달달한 인스턴트 커피는 사람들의 입맛을 쉽게 사로잡았다. 동서식품이 1970년 최초의 국산 인스턴트 커피를 생산하면서 커피 대중화를 더욱 앞당겼다.

그러다가 서울올림픽이 열린 1988년 겨울, 커피 수입 자율화와 함께 원두커피 전문점 시장이 열렸다. 서울 압구정파출소 앞에 국내 최초의 원두커피 전문점 자뎅 1호점이 들어섰고, 테이크아웃 판매 방식도 등장했다. 이후 스타벅스가 1999년 이화여대 앞에 국내 1호점을 내면서 본격적인 원두커피 전성시대가 열렸다. 커피빈, 할리스, 파스쿠치, 탐앤탐스, 엔젤리너스 등 프랜차이즈가 길거리 곳곳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커피 사랑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커피소비량은 연간 353잔 수준이다. 하루 한잔 꼴로 마신 셈이다. 그런데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하루 커피 4잔 이상 섭취할 경우 카페인의 일일 섭취 권고량을 넘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